지역기업 '퇴직연금' 가입 저조

광주·전남 5만업체 중 고작 314개사만 도입

전국 최저 수준…기업 부도땐 퇴직금 날릴 판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넘었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의 외면으로 가입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4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업체는 314개사로 전체 5만여개 업체 가운데 0.62%에 불과했다.

이는 특히 전국의 가입업체수 1만6천742개사(2월말 기준)의 1.87%에 머물러 전국대비 가입률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가입 업체 가운데 6분의 1가량을 유치한 광주은행의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대다수 업체가 근로자수 20인이하의 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퇴직연금 시장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다.

3월말 기준으로 광주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업체는 57개사에, 해당 근로자는 871명이며 적립금은 12억8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300인이상 대기업은 한 곳도 없고 20인이상 300인이하의 중기업은 10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82.5%인 47개사가 모두 20인이하의 소기업에 해당된다.

이렇다보니 10인미만 사업체가 가입대상인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한 업체가 31개사로 전체 가입업체의 절반이 넘지만 적립금은 1억1천800만원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제도는 정부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 지급보장차원에서 2005년 12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은행과 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로 나뉜다.

하지만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1차례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되고,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매년 퇴직금을 손에 쥐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S증권 광주지점 이모 부지점장은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위해 최근 광주지역 모 중견회사에 찾아갔다가 '당장 현금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릴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제휴사업부 관계자는 "당장 눈앞의 현실을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다보니 가입이 저조하다"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근로자들은 업체 부도시 최악의 경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한 푸른중공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산한 43피트(길이 13.35m)급 크루즈 모터 보트. 이달 말 미국 선주사 인도에 앞서 회사 관계자들이 목포항에서 시험 운항을 하고 있다.

국내 첫 '메탈 크루즈 요트' 생산

대불산단 푸른중공업 이달말 께 미국 수출

지역 중소 조선업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메탈 크루즈 요트를 생산했다.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한 푸른중공업은 "2004년 요트 제작에 착수한 이후 3년여만에 50피트(15m)급 크루즈 세일링 요트와 43피트(13.35m)급 모터 보트 등 2척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요트는 시험운항 등을 거쳐 이달 말께 미국의 한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호주의 유명 요트사와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이전과 자체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이 요트(승선인원 10~15명)는 개인 또는 단체 해양 스포츠 레저 활동에 적합하며 한 달 이상 장기 항해가 가능토록 바닷물을 음용수로 만드는 워터 메이커를 비롯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 필수품과 거실, 침실(2개)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세계 일주 등 장시간 거주가 편하도록 실내가 꾸며졌고 선체도 스틸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으며 레이더, 수심측정기 등 첨단장비도 장착됐다.

기존 요트는 FRP(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방식으로 제작해 폐기때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반해, 메탈 크루즈 요트는 스틸로 만들어 환경오염이 없고 선주 주문에 따라 디자인을 바꾸기가 용이하다.

이 회사는 첫 생산한 요트 외에도 38피트급 세일링 요트 등 3척을 건조 중에 있다.

또 호주에서 85피트급 모터보트 한 척을 수주했으며 미국 등지로부터 10여척의 요트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설립된 이 회사는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14억이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광주 IT중기벤처 민간 투자활성화 오늘 기업설명회

IT중소벤처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설명회(IR)가 광주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다.

정보통신부는 5, 6일 광주시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큰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R행사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는 IR 행사에 앞서 기업과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민 · 관 정책협의 네트워크인 '광주지역 IT전문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정책협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전문협의회는 업종 · 현안 · 지역별로 41개(DMB, u-시티 등)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계 공통의 애로, 이슈, 지원책 등을 기업과 정책담당자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기관은 IT벤처기업연합회(www.koiva.or.kr 02-2140-3253), 교보증권㈜(IB센터, 02-3771-92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매출↑ 영업이익↓

1,000원어치 팔아 56원 이익 남겨…수익성 악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들은 1천원어치의 물건을 팔아 56원의 이익을 내는데 그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중 12월 결산법인 22개사(유가증권시장 13개, 코스닥시장 9개)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한 것으로, 1천원어치를 팔았다면 2005년에는 85원을 손에 쥐었지만 지난해에는 56원밖에 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지역 기업들의 매출액은 총 5조3천58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천749억원(7.5%)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3천14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220억원(-28.8%), 순이익은 2천518억원으로 158억원(-5.9%)이 각각 줄어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7.8%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6.6%로 광주·전남지역 기업에 비해 1.0%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매출액은 늘었지만 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하락(원화절상) 등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시트·핸들 제조업체인 대유디엠씨(258%), 인터넷TV 셋톱박스 업체인 셀런(123%), 광주신세계(53%) 순이었다. 당기순이익은 금호산업(116%), 부국철강(79%) 순으로 급증하는 등 15개사가 흑자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저소득층에 '안전 서비스' 돌입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전기안전 고충처리 서비스반' 발대식<사진>을 갖고 24시간 무료 고충처리 서비스인 '스피드 콜(Speed-Call)' 업무에 본격 들어갔다. '스피드 콜'은 저소득층 가정내 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이나 정전에 대한 응급조치 서비스로, 지난 2005년 제주도에서 첫 시범실시된 뒤 지난달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 됐다. 신고 전화 1588-7500.

서비스 수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 가구 ▲저소득층의 임대 아파트 가구 등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유사 석유 알고도 쓰면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쓰는 사용자에게 오는 7월부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 7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 석대법은 기존법이 제조, 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유사 휘발유가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차지하면서 약 8천억원 가량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6일까지 올 상반기 사무·기술분야 신입사원을 공채한다.

4일 한전 전남사업본부에 따르면 상반기 채용인원규모는 총 194명으로, 사무, 송변전, 배전, 통신, 토목, 건축, 발전, 특수직군 등에 걸쳐 사무분야 60명, 기술분야 134명을 선발한다.

사무분야는 학력 및 전공제한이 없으며, 기술분야는 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 및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연령제한은 없다. 응시 희망자는 4~6일 채용 홈페이지(http : //ibsa.kepco.c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은 외국어 성적 순위로 진행되고, 자격·면허증 가점이 주어진다. 1차전형에서 전공 필기시험 등 직무능력 평가를 하고, 2차전형에서는 논술·면접·적성검사 등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6월7일 발표한다.

/이종행기자 golee@k